전남개발공사, 종합청렴도 전국 1위 '대통령상 표창'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문…청렴윤리경영 강화
장충모 사장 "공정·투명·책임 가치 확립에 앞장"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준법경영 체계 확립과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청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부패방지와 권익구제 분야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의 날'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대통령 표창)에 이어 2025년 종합청렴도 전국1위로 이번 부패방지 부문까지 정부 최고 훈격의 포상을 연이어 수상하게 됐다.

이로서 '경영 성과'와 '청렴' 양대 핵심 가치를 모두 대통령 표창으로 증명해낸 유일무이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개발공사는 2020년 청렴도 5등급에서 5년 만에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면서 새롭게 변모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사 최초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고,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규정화하는 등 윤리규범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부동산 투기방지시스템, 동행변호사, AI 청렴챗봇, 미리체크 제도 등 예방중심의 스마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청렴 문화를 조직의 DNA로 안착시켰다.

장충모 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준법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청렴을 실천해 온 임직원 모두의 헌신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투명·책임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올해 'ALL CLEAN, 모두가 항상 청렴하게'의 슬로건 아래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윤리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 축제가 세계 무대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대상

보성군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선정됐다.

영광군은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진제공=영광군

보성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문화 경쟁력 입증

5년 연속…전통예술 계승

보성군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권위 있는 축제 시상으로, 콘텐츠 경쟁력과 운영 완성도, 관광객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판소리 서편제의 본고장이라는 보성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명창 공연, 전통 예술 체험, 군민 참여형 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며 전통 예술의 계승과 대중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위 있는 전국 판소리 경연 운영과 완성도 높은 공연 콘텐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5년 연속 대상 수상은 전통 예술을 지켜온 국악인과 군민, 축제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국악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판소리 경연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국악인 교류와 참여를 확대해 축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며,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전국 행사 자리매김

자연·문화·관광 조화 눈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제14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축제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축제관광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전국의 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과 관광 파급효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축제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에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불갑산을 배경으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상사화 군락지를 활용해 자연·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축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관람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체험형·감성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상사화 축제를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과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강화와 품격 있는 축제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사화축제를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리는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

드림투데이 사장에 오성수 광남일보 전무이사

드림투데이 신임 사장에 오성수(60·사진) 광남일보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드림투데이는 최근 (주)드림미디어 이사회를 열어 오성수 광남일보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오 사장은 곡성 출신으로 금호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지역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매일 기자와 광주매일신문에서 논설위원, 편집국장, 상무이사 등을 거쳤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나눔의 가치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

노진석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취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진석 사무처장(사진)이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노 신임 사무처장은 이달부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및 배분 사업 등 전반적인 공식 업무를 총괄한다.

그는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및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2003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사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거쳐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배분·경영 사업을 총괄해왔다.

노진석 광주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연대와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의 현장에서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어려운 이웃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광주의 건강한 나눔의 가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동구와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했다.

광주 동구-귀뚜라미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지역 인재성장 응원

광주 동구와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최근 청사 상황실에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에는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과 장학생, 학부모 등 90여명이 참석했고,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함께 격려했다.

올해 귀뚜라미 장학금은 학력 우수, 예체능·기술 우수, 모범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2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해 총 50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귀뚜라미 장학사업은 창업주인 최진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1985년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올해로 41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7만여명의 학생에게 총 55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동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진민 회장과 귀뚜라미그룹에 깊이 감사하다"며 "장학생이 지역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해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K-만화·웹툰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협력 '한뜻'

ACC재단-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사장 김명규)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백종훈)은 최근 ACC 재단 다목적회의실에서 만화 문화의 진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만화·웹툰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만화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K-만화·웹툰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만화 산업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문화예술 행사 연계 추진 및 협력,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오는 6월 오스트리아 빈 세계박물관에서 진행하는 'K-만화·웹툰을 기반으로 오스트리아 빈 세계박물관

유물 컬렉션과의 융합 인터랙티브 전시'에 협력해 한국 만화 콘텐츠의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ACC 재단은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외연을 만화와 웹툰 영역까지 확장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당의 인프라를 활용해 만화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등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전남문화재단, 전남맞춤형 통합문화이용권 주효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역주관처'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우수 지역주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관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발급 및 이용, 카드 이용혜택 확대, 카드 이용 활성화 노력, 주관처 기획사업 추진, 사업운영 내실화 등 총 5가지 부문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전국 4개 기관이 우수 지역주관처로 선정됐다.

전남문화재단은 도서·산간 지역 이용자와 고령자 등의 편리를 위한 전화결제

가맹점을 안내하는 '집 앞까지 문화택배 4탄'을 제작해 배포하고, 문화예술 체험 분야 사용증대를 위해 '지역문화축제 임시가맹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남 맞춤형 기획 사업을 통해 지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사업 운영을 통해 전남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